

# 펄펄 끓는 지구촌...미·유럽 폭염 비상

### 그리스·스페인 등 산불 몸살 유럽 51만7881ha 화재 피해 지난 한해 피해 규모 넘어서 보스턴 89년만의 역대급 더위

전 세계가 들끓고 있다. 유럽은 폭염에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속삭이는 산불이 잇따르고 있으며 미국도 동북부 일대가 폭염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AFP·dpa통신에 따르면 그리스에서는 큰 규모의 산불이 4곳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유명 휴양지 레스보스섬에서 전날 시작된 산불은 이틀째 계속됐다.

한때 주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자욱하게 치솟은 화염이 헬기와 소방대원 접근을 어렵게 하면서 진화도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등지에 있던 관광객과 민가 주민 등 400여명을 상대로는 일찌감치 대피령이 내려졌다.

북동부 에브로스 지역의 검은대머리수리 군락지로 유명한 다디아 국립공원 산기슭에서는 소방관 수백명이 불길을 잡기 위해 나흘째 구슬땀을 흘렸다. 남부 펠로폰네소스와 크레타섬에서도 화재가 맹위를 떨치며 주민들이 부랴부랴 보금자리를 잠시 떠났다.

현지에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된 폭염 영향으로 산불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에서도 불이 나 주민 580여명이 다른 지역으로 급하게 대피했다.

양행 빅터 토레스 카나리아 제도 주지사는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고 있다며 “불을 최대한 빨리 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근방 국경 지대 산불로 2000ha 넘는 산림 피해를 본 슬로베니아 카르스트 지역에서도 2000여명의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진화에 안간힘을 썼다.

체코에서도 독일과 인접한 보헤미안 스위스 국립공원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약 7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은 올해 유럽에서

51만7881ha(5178.81km<sup>2</sup>) 면적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고 집계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잃은 47만 359ha(4735.9km<sup>2</sup>)를 웃도는 규모이다.

미국도 동북부 일대가 폭염에 휩싸였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보스턴은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섭씨 37.8도)까지 올라가 7월 24일 기온으로는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1933년 98도를 넘어섰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보스턴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주최 측은 “보스턴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날씨 상황 때문에 다음달 21일로 대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도 이날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까지 오르는 기상 예보에 폭염 비상상태를 연장하고, 노숙자와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점검했다.

뉴욕 인근에 있는 뉴저지주 뉴욕은 5일 연속 화씨 100도를 돌파, 1931년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고 미 기상청(NWS)은 밝혔다.

동부 연안뿐 아니라 캔자스주,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와 같은 중서부 지방과 캘리포니아주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테네시주도 폭염의 영향권에 놓였다. /연합뉴스



이별의 키스 나누는 우크라인 커플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열차역에서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드니프로로 향하는 열차에 오르기 전 연인과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 동아프리카 5000만명 극심한 식량 위기 직면

### 우크라 전쟁에 최악 가뭄 겹쳐

역대 최악의 가뭄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5000만명이 극심한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각국에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서먼사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장은 전날 케냐 투르카나 주(州)에 있는 카초다 지역 구호센터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악의 ‘인도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각국의 시민과 정상을 향해 호소한다”며 “아무런 잘못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아프리카인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을 지목해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중국의 세계식량계획(WFP)에 대한 지원 규모가 300만 달러(약 39억 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는 미국이 2022년 회계연도 기준 WFP에 지원한 약 40억 달러(5조2400억 원)와 비교하면 한참 밑도는 수준이라고 WSJ은 짚었다.

파워 처장은 유럽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최근 추가 지원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이들 국가가 ‘일상적’ 규모를 넘어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할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복잡한 국제 정세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진 동아프리카 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동아프리카 지역 연합체인 정부간개발기구(IGA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케냐와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남수단 등 동아프리카 일대에서만 5000만 명이량이 극심한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유럽 에너지 절약

### 프랑스 냉난방시 문 개방 범칙금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위기에 맞서 프랑스가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섰다.

아네스 파니에-뤼나셰르 프랑스 에너지전환 담당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간 르주르날디망슈 인터뷰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냉난방시 상점 문 개방과 공장·기차역 외 장소의 심야 조명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냉난방 중 문을 열어도 에너지 비용이 20%가 더 나간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이달에 에어컨을 가동하고 문을 열어둔 상점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22일 트위터에 “기후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이런 일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에선 경찰 적발시 범칙금이 최대

150유로(20만원)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범칙금을 최대 750유로 부과할 계획이지만 우선은 계도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파니에-뤼나셰르 국무장관은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담은 법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경일 TV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활용하려는 데 대비해 에너지 절감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파니에-뤼나셰르 국무장관은 또 유가 상승에 대응해 보조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도 유가 보조금을 1 당 0.18유로에서 가을에 0.30유로로 올렸다가 11월에 10센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온 공화당에서는 보조금 지급 인상 계획을 환영했다. /연합뉴스

### 아기 어릴 때 쓰는

### ‘아기말’은 만국 공통어

부모가 아기를 어릴 때 쓰는 ‘아기말’은 만국 공통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40여 명의 과학자는 최근 6개 대륙 410명의 부모가 18개 언어로 이야기하는 1615개 음성 파일을 분석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부모의 생활 방식은 고립된 생활을 하는 이에서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이, 인터넷을 잘 다루거나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탄자니아에서 수렵과 채취 생활을 하는 사람부터 중국 베이징 도심에 사는 사람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연구 결과 거주 지역이나 문화적 다양성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아기에게 하는 말은 매우 유사했고 그 말은 성인들끼리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 최신호에 실렸다.

이번 연구 보고서 주요 저자로 미국 예일대 해스킨스 연구소의 심리학자인 코트리 힐튼 교수는 “부모들이 ‘오오오, 헤에엘로오 베이베이이’ (Ooo, helloooo baby) 하듯이 말을 변형해 높은 음조로 아기에게 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음성 변조는 사람이라면 모두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게 분석의 골자다. /연합뉴스



미국 ‘제네바 물싸움 서 더위 식히는 시민들 24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제네바 기념 공원에서 열린 ‘제네바 물싸움’ 도중 아이들이 쏟아지는 물을 맞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열린 이날 행사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소방차가 뿌리는 물로 더위를 식혔다. /연합뉴스

## 태국 노동자 한국 불법 취업 증가세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태국인이 불법 취업 후 단속을 피해 ‘유령’처럼 지내고 있다고 태국 유력 영문일간지가 24일 보도했다.

방콕포스트는 이날 1면과 3면에 걸쳐 실은 특집 기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태국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몰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

나 다수가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한 뒤 불법으로 일하는 지름길을 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식 취업을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한국어 등 한국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해서 불법으로 취업한다는 것이다. 방콕포스트가 인용한 주태국 한국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돼 일하는 태국인은 1만8221명이며, 불법 취업자는 약 14만명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